

요나스 하센 케미리 (Jonas Hassen Khemiri)의 소설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질과 그의 정체성

홍재웅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케미리와 그의 소설 『몬테코어』
 - 2.1 케미리
 - 2.2 『몬테코어』의 줄거리
 - 2.3 아버지, 압바스 케미리
 - 2.4 아들, 요나스 케미리
3. 『몬테코어』에 나타난 케미리의 언어분석
 - 3.1 스웨덴어화된 프랑스어
 - 3.2 어휘의 조합
 - 3.3 사회적 규칙에 대한 위반
 - 3.4 현대적인 관습에 대한 위반
 - 3.5 어휘 결합에 대한 위반
4. 언어적 폭력과 정체성의 위기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급격한 세계화(Globalisation)와 세방화(Glocalisation)의 영향으로 초국적인 탈경계화와 더불어 문명 및 문화갈등이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국가, 민족, 지역, 인종, 언어, 이념을 넘어선 대통합의 공존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자본이 세계화된 시대에 '이주'는 전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이라는 흐름과 더불어 문학 정전(canon)으로서 북유럽문학이라는 기존의 견고한 학문적 풍토에 이주자문학이 새로이 합류하게 된다. 이주자문학은 동일한 국적, 동일한 민족의 정체성, 동일한 배타적 시민권 등 민족과 지역 및 문화를 동일시하는 기존의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이주자문학이 최근 스웨덴 문단에도 다원주의적 삶의 양식과 다양분을 공급하고, 이러한 다양한 담론들을 만들어내면서, 최근 스웨덴 이주자 문학의 일부 작가들은 동시대 스웨덴 문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들로 손꼽히고 있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작가로 일컬어지는 이주 작가로는 요나스 하센 케미리(Jonas Hassen Khemiri), 알레한드로 레이바 벵에르(Alejandro Leiva Wenger), 요한네스 안유루(Johannes Anyuru) 그리고 마리아네 바크티아리(Marjaneh Bakhtiari)가 있다. 본 논문은 2006년에 P.O. 엔퀴스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케미리의 자전적인 소설 『몬테코어(Montecore: En Unik Tiger)』를 중심으로 이러한 이주자문학의 특징을 고찰해보려고 한다. 『몬테코어』는 케미리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스웨덴 사회에 진입하는 1세대 이주자가 겪는 어려움, 1세대와 2세대 이민자와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외에도, 케미리의 작품에서는 언어가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¹⁾ 특히 케미리가 소설에서 사용한 단어들

1) 케미리의 작품에 주로 등장하는 언어는 이주자의 언어 또는 링케뷔 스웨덴어(Rinkeby Svenska)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링케뷔 스웨덴어란 링케뷔라는 스톡홀름시의 특정지역에 이민자들과 이들의 후세대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 1980년대부터 이 지역에서는 독특한 언어 현상이 일어났다. 스웨덴 전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과 지역을 대표하는 스톡홀름의 도시구역인 링케뷔의 이름을 따서 이를 링케뷔 스웨덴어라고 부른다. 언어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지만,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 방언

은 여러 가지 개념의 연합에 의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념뿐만 아니라 감정가치 또한 연합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단어의 주의, 부의 등 의미로써 개념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작가의 정서, 욕망, 의지, 기분,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그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이나 상황 따위를 전한다. 본 논문에서는 케미리의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언어를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케미리와 그의 소설 『몬테코어』

(Sociolect), 인종적 방언(Ethnolect) 혹은 다인종적 방언(Multiethnolect) 으로 지칭한다. 피진(pidgin) 언어(외부로부터 온 무역상들과 현지인이 만나면서 의사소통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혼성어; 피진이 뿌리내려 모국어로서 사용되는 말을 크리올이라 함)는 현지에 확립된 언어가 없는 옛 식민지 지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교역에 따른 언어접촉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휘는 단순하고 격변화 따위의 복잡한 문법규칙이 없다. 서로 만나는 두 언어 가운데 어휘는 상층어에서, 문법구조는 하층언어에서 따오게 되며 전체적으로 단순하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언어로 피진은 불안정한 언어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링케뷔 스웨덴어와 같은 혼합 언어는 언어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계속해서 발전해갈 측면이 크다. 링케뷔 스웨덴어의 특징은 간단한 스웨덴어 문법에 다수의 차용어가 합쳐지는 형태이다. 차용어는 주로 터키, 쿠르드족, 아랍어, 그리스어, 이란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시리아어, 스페인어 등에서 빌려온다. 이외에도 다수의 영어 단어들도 포함되며 영문법도 사용이 된다. 특히 아프리카메리칸들의 언어스타일과 힙합 음악과 문화가 혼합되어 있다.

<예>

링케뷔 스웨덴어: Yalla bre, aina kommer, çok loco!

스웨덴어: Skynda er, polisen kommer, [de är] helt galna!

한국어: 서둘러, 경찰이 오고 있어, [재네] 완전히 미쳤어!

예로 든 링케뷔 스웨덴어의 단어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아랍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터키어, 스웨덴어, 터키어 마지막으로 스페인어가 포함되어있다. 게다가 거울을 뜻하는 'aynaxiz'에서 나온 'aina'라는 단어는 경찰이라는 터키의 속어이다.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함과 동시에 일부분의 문법은 공유하지만 스탠더드 스웨덴어와는 차이가 있다.

<예>

링케뷔 스웨덴어: Idag jag tog bussen ("Today I took the bus").

스웨덴어: Idag tog jag bussen ("Today took I the bus").

한국어: 오늘 그 버스를 탔어.

2.1 케미리

이제까지 국내에 거의 소개된 바 없는 케미리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듯하다. 케미리는 스웨덴 어머니와 튀니지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스톡홀름과 파리에서 문학과 국제 경제학을 공부했다. 2003년에 『빨간 눈(Ett öga rött)』이라는 소설로 데뷔했으며, 앙에레드스 극단이 이 작품을 각색하여 무대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 소설은 이듬해인 2004년 스웨덴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다. 게다가 2007년에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져 주목을 받으면서 케미리는 데뷔소설 하나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들 중 한 사람으로 급성장했다.

케미리의 데뷔 희곡 『침입(Invasion)』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스톡홀름 시립극단의 연출가 파르나스 아르바비(Farnaz Arbabi)에 의해서 무대에 선보였으며, 공연기간 내내 전석 매진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프랑스, 독일, 영국, 노르웨이 등지에서도 공연되었는데, 특히 독일에서는 여섯 개의 다른 극단들이 이 작품을 공연으로 제작했으며, 모두 대단한 찬사를 받았다. 이후 2008년 10월 『5x神 (Fem gånger Gud)』라는 작품이 백제(Växjö)의 라디오 극단에서 초연되었고, 국립순회극단에서 제작된 공연이 전국을 순회 공연하였으며, 스톡홀름 시립극단도 이 작품을 제작하여 무대에 올렸다.

2006년에 두 번째 소설인 『몬테코어』가 아우구스트상에 노미네이트되었으며, 같은 해에 P. O. 엔퀴스트(Enquist)상을 수상했다. 2008년의 소설, 『끝없이 변하지 않는(Oändrat, Oändligt)』으로 스웨덴 라디오 베스트 단편 소설상을 수상했다. 2009년 10월에는 『우리는 백(Vi som är hundra)』이라는 작품이 예테보리 시립극장에서 초연되었으며, 2011년 노르웨이에서는 최고 공연상인 헤다 가블레르상을 수상했다. 최근 이 작품은 노르웨이와 함부르크의 탈리아 극단에서도 초연되 바 있다. 2011년 10월 케미리의 데뷔 희곡인 『침입』이 극단 유랑선에 의해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되어 우리나라에도 케미리의 이름이 소개되었다. 케미리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동시대 스웨덴 작가로 손꼽힐 뿐 아니라 최근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기 시작한 신예 작가이다.

2.2 『몬테코어』의 줄거리

가족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아버지의 옛 친구인 카디르가 튀니지에서 젊은 작가 요나스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소설이 시작된다. 카디르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사진작가인 아버지내지 옛 친구에 관한 책을 함께 써보자는 제안을 한다. 케미리의 두 번째 소설 『몬테코어』는 지나칠 정도로 심한 반어법을 구사하고 있으며, 데뷔 소설이었던 『빨간 눈』이 1인칭 형식인데 반해 『몬테코어』는 콜라주와 같은 형식으로 여러 인물의 목소리를 드러내 보여준다.

소설은 두 개의 내러티브로 전개되는데,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들과 그들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나스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하는 압바스의 삶에 관한 카디르 자신의 이야기이다.

요나스는 화가 난 아들이며 작가이고 반자본주의자이며 인종차별반대주의자이고, 마리화나를 피워대는 가짜 행동주의자이며 비행 청소년이다. 카디르는 아버지의 친구며 채권자이고, 여자 관광객을 꼬드기는 사람이고, 사진관에서 조수로 일하고, 포커 프로선수이고, 호텔업자이기도 하다. 카디르는 마치 압바스의 가명 같기도 하다. 압바스 케미리는 아버지로 사진작가로 실패한 아버지이고 포르노 작가이며 익명의 인권 사진작가이다. ‘몬테코어(Montecore)’는 이름과 스토리, 마찰을 일으키는 기억들과 반증들, 인물들의 역할과 같이 복잡한 장치들을 한꺼번에 으깨어버리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일지 모른다.

케미리 소설의 후반부는 소설에서 가장 강력한 혼합이 이루어지는 대목이다. 예술 사진작가로서 실패하고 만 압바스는 자신의 이름을 크리스테르 홀름스트룀 압바스 케미리(Krister Holmström Abbas Khemiri)라는 스웨덴식 이름으로 바꾼다. 마치 스웨덴의 유명 사진작가 크리스테르 스트룀홀름(Christer Strömholm)을 연상시킨다. 압바스는 싸구려 사진가로 전략해버려 굴욕을 당하지만 그래도 성공을 한다. 튀니지의 가족을 떠난 후, 미국에서 익명으로 사라져 버리기 전에 압바스는 순종하는 아랍인 테마의 포르노 영화를 시리즈로 만드는 사진작가가 된다. 중동지역의 전쟁과 끊임없이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포르노그래피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소설의 종결부는 정말 어둡고, 비참한 마음이 들게 한다.

2.3 아버지, 압바스 케미리

요나스의 아버지는 다양한 가명으로 전쟁 지역에서 찍은 사진을 출판하고 있다. 이렇게 찍은 그의 사진들은 이미 명망이 높은 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사실 음모와 폭압을 폭로하는 것이다. 케미리는 네덜란드 사진기자 폴 브리커의 이름을 아버지의 가칭으로 빌려온다.

그렇지만 요나스의 아버지가 음모를 폭로하기 위한 열의 하나만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었다. 요나스의 아버지는 스웨덴으로의 이주 후, 스웨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카디르와의 서신교환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더 스웨덴 사람처럼 된다고 생각했는지 우스꽝스런 예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들은 '타자화'하는 경향을 확산시키는 예이기도 하다. 인종집단에게 존재하는 특질, 즉 소설 속에 있는 '스웨덴적인' 것에 요나스의 아버지가 동일화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식민주의적 '타자화'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요나스의 아버지는 희극적인 인물이 되고 급진적인 아들의 눈에 아버지는 비열한 배신자로 전락하고 만다. 결정적인 배신은 아버지가 여왕의 이름으로 스튜디오를 연 후에 애완동물의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사가 된 일이다.

하지만 요나스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는 이미 요나스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다. 사진을 통해 세계의 양심이라는 아버지의 성공을 믿었던 것처럼, 그에 대한 요나스의 증오는 후에 재구성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소설의 제목도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준다. 본래 몬테코어는 호랑이 이름인데, 독일 조련사인 지그프리트와 로이의 훈련을 받았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을 하던 중에 호랑이 몬테코어가 조련사들 중 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련사는 목숨을 잃고 만다. 요나스의 아버지는 백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호랑이 몬테코어의 모습과 동일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옥죄었던 권력구조에 대항에 요나스는 점차 공격을 가한다.

소설은 결국 어린 아들의 보상적인 결과를 공상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요나스의 아버지는 요나스를 배신했을 뿐 아니라 요나스가 침대에 들어서면서 열심히 빠져들었던 아랍적인 정체성조차도 아버지는 배신했다.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자, 어머니의 과격한 말투가 계속되었고, 어머니의 희미해져가는 통찰력 사이에 요나스가 갇혀버리고 만다. 형식적인 서신교환, 카디르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의 충돌, 카디르 자신의 기억과 요나스 아버지가 요나스에게 심어놓은 것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요나스의 경험들은 우리의 기억과 인식 속에도 불확실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소설이 너무 많은 풍자의 필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너무 많은 보호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요나스 하센 케미리는 데뷔 소설 「빨간 눈」에서 일인칭의 서술에 만족했지만, 소설 「몬테코어」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목소리와 불확실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기억 속의 기억들을 실험하고 있다. 자신의 데뷔 소설에서 요나스는 목소리의 비타협을 통해 확신했다. 요나스 하센 케미리는 북아프리카 아버지와 스웨덴 어머니를 둔 어린 남자아이를 화자로 등장시켰다. 소설에서 그 소년은 증오라기보다는 그의 아버지가 정체화하려는 스웨덴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표현한다. 그렇지만 소설에서 한 가지 노선만은 분명하다. 화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말은 (가공적인) 진실의 가치를 주장한다기보다 태도에 있어 병적인 징후에 더 가깝다는 사실이다. 음모이론가 할림이 여성혐오, 유대인 증오 그리고 문화 쇼비니즘으로 기울었을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의 그룹에 대한 편견과 증오의 비판을 의미한다.

2.4 아들, 요나스 케미리

파농에 따르면 식민사회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분법적 대립관계를 성립시키고, 이러한 대립관계에서 파생되는 억압 상황은 폭력적 저항을 통해서 극복된다는 것이다. 파농처럼, 요나스는 서구가 구성한 이분법적 사고에 따라 열등의식을 갖게 된,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흑인성을 폐기하고 백인화 되고자 하는 흑인들을 질타한다. 심지어 그 대상이 자신의 아버지에게까지 미친다.

요나스와 그의 친구들은 이주민 세대가 아닌 제 2세대에 속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부모인 1세대와는 달리 부모가 지녔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크다. 그들에게 이러한 욕망이 생겨나게 된 기저에는 스웨덴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있다. 그들이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이러한 시선이 고

착화되는 과정으로서 그들은 응시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응시 속에서 여러 갈등이 생겨나고 직접적으로 상처받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파농이 그의 탈식민 담론을 위한 책략으로서 전투적 저항에 많이 의존하면서 인종차별적이고 폭압적인 정치체제를 극복하고자했던 것처럼 요나스는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친구들과 공통의 목표를 내세우고, 디스토피아에 대한 절망과 분노를 표출한다. 요나스와 친구들에게 있어 폭력과 저항은 자신의 정체성들을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백인과 구별되는 흑인 고유의 정신과 주체성을 통해 식민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다.

케미리가 10대 때 느꼈던 가장 큰 공포증의 하나가 레이저맨이었다. 크게 영향을 주었던 레이저맨의 존재에 대해서 케미리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스웨덴도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동성애 공포증이라는 의미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준다). 나도 스웨덴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나의 국적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던 10대 때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내가 쓴 소설 몬테코어(Montecore)에서도 나타난다. 90년대 초 외국인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한 극우주의자가 전형적인 스웨덴 사람의 모습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총으로 쏘는 사건이 스톡홀름에서 발생했다. 레이저총을 사용해 7개월 동안 무려 11명의 무고한 사람을 쏘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레이저맨(Laserman)이라고 불렀다. 무서운 방법으로 살해하던 그 당시의 일들은 파시즘과 이슬라모포비아(이슬람 혐오증)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머릿속에 떠오르게 한다. 당시 몇몇 사람들은 레이저맨을 외로운 미치광이쯤으로 폄하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는 변화하고 있는 정치 기후를 대변하는 인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레이저맨은 노르웨이의 안데쉬 브레비크 베링(Anders Behring Brevik)이라는 최근의 테러범과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명확하게 반이민 정서를 가지고 있었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국가를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벌였던 참극을 정당화했다. (극단 유랑선)

요나스 하센 케미리는 비난을 받기 쉬운 소수자들에게 주입된 증오와 분리주의를 보여준다. 아버지와 카디르가 침묵, 자연 숭배, 우울증 술중독

자와 같은 것으로 “스웨덴적인” 것이라고 할 때, 그들이 “타자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이민자”로 일컬어지는지 그리고 가장 변화무쌍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과정을 제시한다. 어떤 아빠가 가장 좋은 아빠인지 요나스와 그의 친구들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은 여러 가지 관점을 지적해준다.

3. 『몬테코어』에 나타난 케미리의 언어분석

3.1 스웨덴어화된 프랑스어

〈표 1〉에서는 케미리가 소설 『몬테코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웨덴어화된 프랑스어 단어들을 예시하였다. 표의 가장 좌측에는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표현들이 있고 그 다음 칸에는 케미리가 빌려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본래 의미의 프랑스어를 소개했다. 바로 그 다음 칸에는 문맥상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적절한 스웨덴어 표현 또는 스웨덴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표현이나 단어에 부합되는 번역을 제시하였다. 케미리의 소설 안에는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이 등장하지만, 이들 중에서 설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를 몇 가지만 선택했음을 미리 알려두겠다. 아래 표에서는 전체 아홉 개의 예를 들었는데 일곱 개의 동사와 한 개의 명사 그리고 한 개의 대명사가 제시되었다. 케미리가 소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웨덴어화된 프랑스어에서는 동사를 가장 즐겨 쓰고 있으며, 동사에 비해서 명사나 형용사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게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동사들은 동작동사(Dynamic verb)로 행동이나 행위로 일시적이거나 변화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실제로 프랑스 동사의 대다수가 동작동사(추측하다, 방문하다, 누비다, 보내다, 질주하다, 참가하다)이다. 그럼으로써 스웨덴어화된 프랑스 어휘들은 ‘일시적인 차용어’로 범주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케미리가 사용한 어휘들은 언어 사용자들에게 퍼져서 일반적으로 음이나 문법에 있어서 모국어 발음 양식에 적합하도록 수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 1>

원문	프랑스어	문맥상 적절한 스웨덴어 표현 또는 스웨덴어	문맥상 적절한 한국어 표현 또는 한국어
Devinera vem som skriver dig dessa fraser?	deviner	gissa(v)	추측하다
När jag visiterade er i Stockholm	visiter	besöka(v)	방문하다
Är han fånge hos Nestlé som repressalie för hans avslöjande fotografier från deras slavliknande fabriker i Paraguay?	représsallilles	vedergällning eller hämnd(v)	양갚음을 하다, 복수하다
Dom senaste åren har han tunerat världen runt med sin kamera	toumer	resa(v)	누비다, 여행하다
hans bokhyllor ockuperas av intellektuell samtidslitteratur	occuper	inneha eller ha(v)	채워지다, 점령되다
hans tid passeras med globala världsförbättrare	passer	tillbringa(v)	보내다
galopperar avenyer i sin lila Mercedes 500 SL	galoper	rusa i väg eller fara i väg(v)	질주하다, 경주하다
nombrösa Nobelpris	nombreux	många(prono)	다수
Om han bara hande kunnat skulle han ha partagerat mycket mer	partager	delta(v)	참여하다

3.2 어휘의 조합

<표 2>에서는 케미리가 소설에서 사용한 특별한 형태의 어휘 조합들을 제시했다.

<표 2>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nynedkomna småbröder	nyfödda småbröder	갓 태어난 동생들
premiärroman	debutroman	데뷔소설
publikationshus	bokförlag	출판사
regntorkare	vindrutetorkare	윈도우브러시
mästeropus	mästerstycke, mästerverk	걸작

위의 다섯 가지 예들은 스웨덴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어휘 조합들이다. 다시 말해서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형태들이라고 하겠다. 아이들이 모국어를 학습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접근법과 유사하게, 케미리는 상상과 장난스러움을 담은 어휘 조합을 만들어냈다. ‘nedkommen(분만하는)’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아이를 막 출산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nynedkomna småbröder(새로 태어난 동생들)’은 분명히 어휘 규칙에 위배된다. 어린 동생들은 ‘갓 태어난(nyfödda)’ 것이다. 케미리가 자신의 데뷔소설을 출간한다고 했을 때, 이에 해당되는 스웨덴어 ‘debutroman(데뷔소설)’이라는 단어대신에 ‘premiärroma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publikationshus’라는 어휘 역시 마찬가지다. 문맥상 ‘출판사(bokförlag)’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케미리는 전혀 다른 어휘를 만들어냈다. ‘regntorkare’라는 단어 역시 스웨덴어로는 통상적으로 ‘vindrutetorkare(윈도우브러시)’라고 하며, 케미리가 사용한 ‘mästeropus’라는 단어 역시 일반적으로 스웨덴어로 ‘mästerstycke’ 또는 ‘mästerverk’이라고 부른다.

3.3 사회적 규칙에 대한 위반

<표 3>에서는 사회적 규칙에 위배되는 표현들을 예로 들었다.

<표 3>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käraste hälsningar	hej	잘 있었니? / 안녕
hur mycket slida får man glida?	hur många tjejer får man träffa?	여자를 얼마나 많이 만났니?
prisa man gigantiska gratulationer	jag gratulerar dig stort till framgången	크게 성공한 내게 축하인사를 보낸다

첫 번째 분석 자료로 삼은 예시문은 'käraste hälsningar'이다. 케미리는 이러한 표현을 문장의 제일 첫머리에서 사용한다.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표현은 스웨덴어에서 통상적으로 편지나 이메일의 끝에 인사말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케미리가 이러한 표현을 글 말미가 아닌 첫 머리에 사용한 것은 통용되는 편지형식에 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규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hur mycket slida får man glida?'하는 문장은 성적이고 여성비하적인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게다가 서로 잘 모르고 서로 다른 세대인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말씨가 사용된다면 사회에서 이러한 어법이 용납되는 것도 아니다. 이로 인해서 소설의 카디르라는 인물은 편지의 수신자와의 '우리라는 감정'을 조성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카디르는 수신자에게 가까운 친구처럼 두드러져 보이고 싶어서 그들의 관계를 더욱 굳게 다져나가기 위해서 알 수 없는 특별한 말들을 사용한다. 제대로 된 문맥상의 표현은 'hur många tjejer får man träffa?'이며 이는 여성성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표시해주며 동시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던지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위배 역시 젠더 관점과 윤리적 관례에 대한 침해로 분류될 수 있다.

사회적 인습들에 대한 세 번째 위반은 'prisa man gigantiska gratulationer'라는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käraste hälsningar'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예외범절에 따르면 그러한 구문들은 어느 정도 결정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 'prisa man gigantiska gratulationer'는 'jag gratulerar dig stort till framgången'정도로 옮겨볼 수 있겠다. 이러한 구문들은 축하와

관련해서 사용되곤 하는 적절한 사회적 관용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하인사와 관련된 항목으로 분류해볼 수 있겠다.

3.4 현대적인 관습에 대한 위반

<표 4>에서는 케미리가 소설에서 사용한 현대적인 관습에 대한 위반의 예를 보여준다.

<표 4>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året numrerades till 1986	året var 1986	1986년이었다
för att interpellera	för att fråga	묻기 위해서

위의 표에서 보여준 표현들은 Svenska Akademiens ordbok에 따르면 고어적인 의미나 사용의 예라고 볼 수 있다.(Svenska Akademiens ordbok) 'året numrerades till 1986'는 동시대의 문장 구성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사용이 아니다. 대신에 'året var 1986'라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interpellera'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어적인 형태로 '누군가의 발언을 저지하다, 누군가의 말을 끊다, 누군가를 방해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 의미는 외관상으로 고어적이며 소설의 문맥에 맞추어 볼 때 'för att fråga'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케미리는 소설에서 낭만주의와 1700년대 구스타비안 시대와 같은 언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의 예로 고전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현상이 이상할 것도 없는 것 같다.

3.5 어휘 결합에 대한 위반

<표 5>에서는 의미론적인 결합의 가능성에 관한 어휘의 관습에 대한 위반의 예들을 보여준다.

<표 5>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mest antika vän	äldste vän	오랜 친구
antika ovlja	gamla ovlja	오래된 적대감

‘antik’이라는 단어는 오래된, 고대의 또는 역사적인 유물과 현상을 떠올리게 하거나 내포하는 것을 기술하는데 적용된다. ‘antik vas(고대 물병), antik kultur(고대 문화), antik skald(고대 시인)’ 등이 그러한 예다. ‘antik vän’과 ‘antika ovlja’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위반은 단어 선택의 어휘 결합에 대한 위반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문맥상 ‘äldste vän’과 ‘gamla ovlja’가 보다 적절하다.

<표 6>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du memorerar väl mig?	du kommer väl ihåg mig?	나 기억나지?

‘du memorerar väl mig?’는 어휘 결합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memorera’는 ‘외우다’라는 뜻이며 의도된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문맥상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시나 전화번호를 ‘memorera(외우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를 외우다 라고 사용하기는 어렵다. Sigurd는 이러한 문법이 이러한 예에서 보이는 것처럼 의미론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문장형태를 구성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적합한 형태는 ‘du kommer väl ihåg mig?’가 되겠다.

<표 7>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ivrigt guppande huvud	ivrigt nickande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ivirigt guppande huvud'라는 표현에서 'guppande'라는 단어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형태가 아니다. 'guppa'라는 단어는 '덜컥덜컥 흔들리면서 가다, ~을 난폭하게 흔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보트가 흔들거리며(guppa)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의 걸음이 흔들거릴(guppa) 수 있다. 머리를 흔들거리다(guppa)라는 것은 의미상으로 볼 때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카디라는 소설 속 인물이 의미했던 바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표현으로 보인다.

<표 8>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färska fotostudio	ny fotostudio	새로 연 사진관

'färska(신선한)'라는 단어는 식품과 음료와 같이 연결해서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신선한 오렌지주스, 신선한 빵, 신선한 과일이라는 표현에 적합한 단어이다. 사진관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데 '신선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휘적인 관습에 대한 위반이다. 문제는 'ny fotostudio'라는 어휘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다.

<표 9>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välvuxen aptit	stor aptit	식욕이 왕성한

'välvuxen(잘 성장한)'이라는 단어는 해부학이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생물학적 발전을 기술할 경우에 제일 어울린다. 이러한 예에서 나타나는 위반은 'välvuxen'이라는 형용사가 사람이 아닌 감각을 설명하는 것과 연관시켰다는 것에서 발생한다. 카디르라는 인물은 왕성한 '식욕'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표 10>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en erigerad man	en lång/rak/stor/framstående man	거대한 남자

‘erigerad’라는 단어의 의미는 ‘발기된’이며 남성의 성기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단어를 선택한 예다. 이 문맥상 남성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단어는 lång(긴), rak(곧은), stor(커다란), framstående(높이 솟은) 등이다.

<표 11>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tiden tickar snabbt när man har humor	tiden går snabbt när man har roligt	재미있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간다

케미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카디르는 ‘tiden tickar snabbt när man har humor’라고 쓴다. ‘tiden tickar’는 잘못된 구성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att ha humor’는 ‘농담 잘하는 능력과 농담에 대하여 매우 높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좋은 기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휘적 위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의 적절한 형태는 ‘tiden går snabbt när man har roligt’가 된다.

<표 12>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har stått i stadig vänskap	vara nära vänner	가까운 친구였다

카디르는 ‘har stått i stadig vänskap’이라는 말로 ‘att vara nära vänner’라는 표현을 만들어내었다. 물론 이것은 틀린 의미구성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적절한 형태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은유적으로

불 때 사람은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글자 그대로 카메라라는 카메라 다리 하나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우정은 일생동안 계속되는 것이다. 가까운 친구사이에는 더욱 그렇다.

<표 13>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om du har begåvats med några nyheter från din far	om du har erhållit några nyheter från din far	네 아버지에게서 소식을 들은 게 좀 있다면

‘att begåvas(타고나다)’는 보통 ‘부여받다, 기부 받다, 선물을 받다’ 등의 의미에 사용이 된다. 이 동사로 타고난 재능이 있다거나 선물을 받는다거나 하는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카디르는 ‘om du har begåvats med några nyheter från din far’라는 문장을 완성해 놓았는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 아버지에게서 소식을 들은 게 좀 있다면’ 하고 말이다.

<표 14>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var han lokaliserar sig i detta nu	var han är/finns just nu	바로 지금 그가 있었다
hans logi lokaliseras till ett luxiöst loft i New York	han bor i en lyxig vindsvåning i New York	그는 뉴욕의 고급스런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

카디르는 ‘lokalisera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두 문장에서 명백한 어휘적 위반을 보여준다: ‘var han lokaliserar sig i detta nu och hans logi lokaliseras till ett luxiöst loft i New York.’ 일반적으로 ‘lokalisera’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이야기의 행위를 위해 어떠한 장소를 무대로 삼다, 어떠한 이야기 속의 행위가 어떠한 장소에서 일어나게 하다, 어떠한 장소를 잘 알게 하다’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lokalisera’는 이러한 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또 다른 위반은 ‘i detta

nu'라는 표현에서도 발생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언어구성이 아니다. 표준어로 문장을 완성하려면 'var han är/finns just nu och han bor i en lyxig vindsvåning i New York'라고 해야 한다.

<표 15>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nu rågas mitt bröst av en obstinat oro	nu fylls mitt bröst av en stark/intensiv oro	이제 내 가슴속은 걱정이 가득 채워진다

'nu rågas mitt bröst av en obstinat oro'라고 하는 문장구성 역시 매우 특이하다. 'rågas'의 본래 의미는 '높이 쌓아 올린다, 높이 무언가를 놓다, 높이 올려놓다, 높이 만들다' 등이다. 티스푼에 설탕이 또는 바구니에 블루베리가 수북이 담겨있다(vara rågad) 라고 사용할 수 있다. 'obstinat'라는 단어의 의미는 '논의나 설득을 배제하고 자기의 의견이나 방침을 고집함으로써 완고한, 억지 센, 고치기 힘든'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어떠한 행동이 완고하다(obstinat)라고 할 수 있다. 'rågas'와 'obstinat'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서 잘못 선택된 것이다. 만약 이 문장을 제대로 쓰려면 'nu fylls mitt bröst av en stark/intensiv oro'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6>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draperad i orange overall	klädd i orange overall	오렌지색 오버올을 입은

'draperad i orange overall'라는 문장구성은 어휘적 관습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draperad'는 '주름이 잡혀 예쁘게 드리워지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소설에서는 죄수복이 관타나모 만에 있는 죄수가 입고 있는 죄수복과 유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죄수복은 선망의 대상이나 아름다운 언어로 치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유행이나 디자인 또는 예술과는 연관을 짓기가 어렵다. 표현을 바로 잡자면 'klädd i orange overall(오렌지색 오버올을 입은)'이라고 해야 한다.

<표 17>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devinera vem som skriver dig dessa fraser?	gissa vem som skriver dessa rader till dig?	네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누구인지 추측하겠니?
när jag visiterade er i Stockholm	när jag besökte er i Stockholm	내가 스톡홀름 너희 집을 방문했을 때
är han fånge hos Nestlé som repressalie för hans avslöjande fotografier	är han fånge hos Nestlé som hämnd för hans avslöjande fotografier	사진에 담아서 폭로한 것 때문에 그 양갈음으로 네슬레사가 네 아빠를 붙잡아 놓고 있는 건가
har han turnerat världen runt med sin kamera	har han rest världen runt med sin kamera	카메라를 들고서 전 세계를 여행했다
hans bokhyllor ockuperas av intellektuell samtidslitteratur	i hans bokhyllor finns av intellektuell samtidslitteratur/Hans bokhyllor är fyllda med/av intellektuell samtidslitteratur	책장에는 온갖 동시대 문학작품들을 가득 채워 놓았지
hans tid passeras med globala världsförbättrare	han tillbringar tid med globala världsförbättrare	세계적인 글로벌 개선가들처럼 그도 그렇게 시간을 보냈단다
galopperar avenyer i sin lila Mercedes 500SL	han rusar/far i väg i sin lila Mercedes 500SL	보라색 메르세데스 벤츠 500 SL을 타고 거리를 질주한다
nombrösa Nobelpris	många Nobelpriser	다수의 노벨상들
om han bara hade kunnat skulle han ha partagerat mycket mer	om han bara hade kunnat skulle han ha deltagit mycket mer	할 수만 있었다면 그가 아주 많이 더 참석했을 텐데

위에 제시된 아홉 가지 문장과 표현들은 모두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어휘의 위반은 문장 모두가 스웨덴어화된 프랑스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데 있다.

카디르는 'devinera vem som skriver dig dessa fraser?'라는 질문으로 메일을 시작한다. 문맥적으로 'divinera'라는 단어가 '추측하다'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스웨덴어의 의미는 'gissa vem som skriver dessa rader till dig?(네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누구인지 추측하겠니?)'이다.

그 다음 표현은 'när jag visiterade er i Stockholm'이다. 'visitera'라는 단어의 스웨덴어 의미는 '무슨 수상한 물건이나 훔친 물건이 없는가 하고 소지품과 옷을 세밀히 조사하는 것'이다. 스톡홀름에서 누군가를 조사하는 것은 스톡홀름에서 누군가를 방문하는 것처럼 똑같이 금지되어 있다. 이게 바로 카디르가 의미하는 바다. 단어 'visitera'는 본래 프랑스에서 왔으며 스웨덴어화 되었다. 표준어의 표현은 'när jag besökte er i Stockholm'이다

'är han fånge hos Nestlé som repressalie för hans avslöjande fotografier'라는 문장에서 프랑스어는 'repressalie'이다. 이에 상응하는 스웨덴어는 'vedergällning, hämnd(양갚음, 복수)'이다. 그래서 스웨덴어로 대체시키면 전체 문장은 'är han fånge hos Nestlé som hämnd för hans avslöjande fotografier(사진에 담아서 폭로한 것 때문에 그 양갚음으로 네 슬레사가 네 아빠를 붙잡아 놓고 있는 건가)'가 된다.

'turné'의 의미는 '여러 장소에서 순회공연을 하는 것'이다. 카디르는 이러한 표현을 'har han turnerat världen runt med sin kamera'라는 문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에서 프랑스어의 'tour'는 스웨덴어의 'resa(여행)'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장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är han fånge hos Nestlé som hämnd för hans avslöjande fotografier.

카디르는 자신의 소설에 'hans bokhyllor ockuperas av intellektuell samtidslitteratur'라고 적고 있는데, 'ockupera'라는 스웨덴어의 의미는 '강제적으로 점령하다, 무언가를 빼앗다, 강제 사용하다'이다. 이 단어는 전쟁과 정치적 현상과 관련된 것을 함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자주 연상시킨다. 'ockuper'이라는 프랑스어의 의미는 '소유하다, 소유권, 손에 쥐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는 'i hans bokhyllor finns av intellektuell samtidslitteratur/Hans bokhyllor är fyllda med/av intellektuell samtidslitteratur(책장에는 온갖 동시대 문학작품들을 가득 채워 놓았지)'

에 더 잘 어울린다.

‘hans tid passeras med globala världsförbättrare’의 문장에는 ‘passer’라는 프랑스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보내다’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표현은 ‘han tillbringar tid med globala världsförbättrare(세계적인 글로벌 개선가들처럼 그도 그렇게 시간을 보냈단다)’이다.

‘galopperar avenyer i sin lila Mercedes 500SL’라는 문장의 구성에는 틀린 동사가 어있다. ‘galoppera’라는 동사는 스웨덴어에서 말이나 네 발의 큰 짐승과 관련이 있고, 매 번 공중으로 뛰어오를 때마다 공중에 뜬 채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듯이 움직이는 동물의 모습을 의미한다. 차가 이동하는 것에 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문맥에 어울리는 스웨덴어 표현은 ‘rusar/far i väg(질주하다)’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표현으로 옮기자면 ‘han rusar/far i väg i sin lila Mercedes 500SL(보라색 메르세데스 벤츠 500 SL을 타고 거리를 질주한다)’가 된다.

‘nombrosa Nobelpris’라는 표현의 경우 프랑스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 의미를 추측하기가 용이치 않을 것이다. ‘Nombreux’라는 의미는 ‘många(다수의)’이다. 이러한 예에서 스웨덴어화된 모습은 매우 명백하다. 프랑스어의 독특한 어미가 스웨덴어의 다른 형태로 변화했음이다. 그것의 형태소 때문에 묘사된 단어는 스웨덴어처럼 보인다. 즉 nom-brö-sa이지만 의미론적인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 스웨덴어로는 ‘många Nobelpris’라고 해야 적절하다.

마지막에 제시된 문장에는 프랑스어에서 빌려온 차용어를 담고 있다: ‘om han bara hade kunnat skulle han ha partagerat mycket mer’. 포함되어있는 단어는 ‘partager’이다. 프랑스어-스웨덴어 사전에서 문맥에 가장 잘 적용해볼 수 있는 단어는 ‘delta(참가하다)’이다. 위의 예처럼 이 단어가 음성학적으로 스웨덴어와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어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추측해내기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한 적절한 스웨덴어 표현은 ‘om han bara hade kunnat skulle han ha deltagit mycket mer(할 수만 있었다면 그가 아주 많이 더 참석했을 텐데)’로 해야 한다.

<표 18>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har hans fotografiska karriär glänsats till guldisk succé	har hans fotografiska karriär varit en stor/strålande framgång	그는 사진작가로서 눈부실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잖아

위의 표에는 카디르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단어를 결합시켜 문장을 완성시킨 예이다. 'glänsats till guldisk succé'는 스웨덴어로 볼 때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glänsa'는 '비치다, 빛나다, 반짝거리다, 번쩍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사람과 관련해서도 '광채를 발하다, 주의를 끌다, 별나게 행동하다, 두드러지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반지가 빛난다고 하거나 배우의 연기가 돋보인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이다. 'glänsa'라는 단어가 'guldisk succé'와 결합해서 성공에 관한 의미를 전하려고 한 것인데, 스웨덴어로 적절하게 표현하려면 har hans fotografiska karriär varit en stor/strålande framgång(그는 사진작가로서 눈부실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잖아)'라고 해야 한다.

<표 19>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erbjuds du dagligen parfymade trosor	får du dagligen parfymade trosor	매일 향수뿌린 팬티를 받니?

'erbjuds du dagligen parfymade trosor'라는 문장에는 문맥상 맞는 의미의 'erbjuda'라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få'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스웨덴어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erbjuds'라는 동사는 편지에 팬티가 실제로 담겨있는 것뿐만 아니라 '팬이 자신의 팬티를 언어로 제공한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표 19>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tyvärr handikappades min ambition av kunskapsgap och bisaerade publikationshus	tyvärr hindrades min ambition av kunskapsgap/kunskapsluckor och ointresserade bokförlag	지적인 갭과 출판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나의 야심은 방해를 받게 되었다

위의 'tyvärr handikappades min ambition av kunskapsgap och bisaerade publikationshus'라는 표현에서는 어휘적 위반이 두 군데 있다. 'handikapp'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의 성립, 진행에 거저적거리 방해하거나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의 문맥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는 살아있는 생물의 묘사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사람의 특징을 기술하는데 사용한다. Sigurd는 문법이 문장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의미론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러한 예가 위의 표현에서 나타난다. 'publikationshus'라는 단어는 스웨덴어에서 알맞은 단어의 조합이 아니다. 문맥상 이 단어는 '출판사'를 말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스웨덴어로 옮긴다면 tyvärr hindrades min ambition av kunskapsgap/kunskapsluckor och ointresserade bokförlag(지적인 갭과 출판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나의 야심은 방해를 받게 되었다)로 해야 한다.

<표 20>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radierades min hjärna plötsligt av en genial idé	jag slogs av en genial idé	내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radierades min hjärna plötsligt av en genial idé'라는 문장의 구성은 동사의 사용에 있어서 명백한 어휘적 위반이 나타난다. 'radiera'는 '발광하다,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하다'라는 뜻이 있고 보통은 위의 표현에는 사

용하지 않는다. 햇빛이 빛을 받는다. 혹은 헤드라이터가 강한 빛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다. 문맥상 'jag slogs av en genial idé(내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스웨덴어 표현이 적합하다.

<표 21>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din far har vuxit till en mycket stark politisk prominens	din far har utvecklats till en mycket stark och politiskt framstående/vålansedd person	네 아빠는 아주 정치적으로 눈여겨 볼만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kollidera våra kloka huvuden i ambitionen att kreera en biografi värdig din prominente far	slå våra kloka huvuden ihop i strävan att skapa en biografi värdig din framstående far	우리의 현명한 머리를 맞대고 탁월한 네 아빠에 관한 가치 있는 자서전을 써내는데 힘을 합쳐보자
korrespondera mig snarast din positiva respons	återkom snarast med ett positivt svar/återkom snarast om du samtycker	내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렴

위에 제시된 세 문장은 적절한 의미의 단어를 담고 있지만, 이 단어의 선택은 스웨덴어의 명료성에 위배된다.

카디르는 'din far har vuxit till en mycket stark politisk prominens'라고 썼는데, 일반적인 문장들은 'din far har utvecklats till en mycket stark och politiskt framstående/vålansedd person(네 아빠는 아주 정치적으로 눈여겨 볼만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인 'kollidera våra kloka huvuden i ambitionen att kreera en biografi värdig din prominente far'에는 'kollidera'와 'kreera'라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다. 'kollidera'는 '누군가에 혹은 무엇엔가 심하게 부딪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kollidera'는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교통사고에 관한 내용에서 자주 사용된다. 'kreera'는 '창조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형태를 만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의미상으로 볼 때 맞는 것처

럼 보이지만 어휘의 선택 자체가 언어의 명료성에 위배된다. 적합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återkom snarast med ett positivt svar/återkom snarast om du samtycker(내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렴)'가 된다.

<표 22>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du kommer inte kondolera dig	du kommer inte att ångra dig	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du kommer inte kondolera dig'라는 문장에는 어휘 선택에 오류가 나타난다. 'kondolera'라는 단어는 보통 누군가 죽음에 대해 유감을 표시할 때 사용되는데, '자신의 공감과 동감을 분명히 밝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유감을 표시하다, 슬픔을 표시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ångra'라는 동사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적합한 표현으로 완성하면 'du kommer inte att ångra dig(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이 된다.

<표 23>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för att fukta din lust till min proposition	för att göra dig nyfiken till mitt förslag	내 제안에 네가 흥미를 가지게 되도록

'för att fukta din lust till min proposition'라는 문장은 'fukta'라는 단어가 문맥상 스웨덴어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어휘적 위반이다. 'att fukta'라는 동사는 '적시다, 축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맥에서 은유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för att göra dig nyfiken till mitt förslag(내 제안에 네가 흥미를 가지게 되도록)' 정도가 되겠다.

<표 24>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tillfogar jag två Word-dokument	bifogar jag två word-dokument	워드 문서 두 개를 첨부한다

'tillfogar jag två Word-dokument'라는 문장에는 'tillfoga'라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다. 'att tillfoga'는 '무언가와 관련해서 포함시키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문맥상 부적합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지와 관련해서는 'bifoga'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bifogar jag två word-dokument(워드 문서 두 개를 첨부한다)'라는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

<표 25>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att detaljera sin historia för dig	att utförligt berätta om sitt liv för dig	네게 자신의 삶에 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att detaljera sin historia för dig'의 문장 구성에서는 어휘의 선택이 잘못되어 있다. 'att detaljera'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자세히 또는 추가적으로 발표하다, 이야기하다, 묘사하다, 그리다'등의 의미를 지닌다. 의미상으로는 문맥상 들어맞지만 실제로 올바른 사용이 아니다. 이 문장을 올바르게 완성하려면 'att utförligt berätta om sitt liv för dig(네게 자신의 삶에 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라고 해야 한다.

<표 26>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kände din kommande roman	kände till/visste om din kommande roman	너의 다음 소설에 관하여 알고 있었어

'kände din kommande roman'이라는 문장은 완전하지 않다. 이 문장을

올바르게 완성하려면 'kände till/visste om din kommande roman(너의 다음 소설에 관하여 알고 있었어)'라고 해야 한다.

<표 27>

본문 텍스트	적절한 스웨덴어 형태/제안	적절한 한국어 표현
skina avsevärda avenyer med strålande stolthet	promenera i stolthet på de stora gatorna	커다란 거리에서 자부심에 가득 차 산책하다

'skina avsevärda avenyer med strålande stolthet'라는 문장에는 위반 사항이 많으며, 표현방법 역시 매우 생소하다. 잘못 사용된 단어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도 잘못 이루어져 있다. 'skina'라는 단어는 '빛이 비치거나 반사하다, 비추다, 빛나다'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주로 사물과 현상하고 연결지을 수 있는 단어이다. 문장의 구성면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어의 조합이 매우 이상해 보인다. 적절한 문장으로 완성하려면 'promenera i stolthet på de stora gatorna(커다란 거리에서 자부심에 가득 차 산책하다)'으로 해야 한다.

4. 언어적 폭력과 정체성의 위기

케미리의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언어다. 카디르의 이야기는 지나치게 공을 들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재미있는 외국인의 스웨덴어로 들린다. 요나스의 언어에는 힙합, 아랍어, 영어,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케미리시라고 부르는 사적인 언어들이 스며들어 있다. 카디르의 경우도 압바스의 편지들을 아랍어에서 스웨덴어로 번역한다.

소설에서 보여주는 언어학적 퍼포먼스 수준은 읽는 이를 흥분시킬 정도로 재미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혼혈아, 그의 목소리들은 기록하는 형식과 참조하는 형식을 오가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이 서로 다시 섞이면서 인물과 문화에서 드러나는 실질적인 정서적 차이가 잘 묘사된다.

언어는 제국주의적 억압의 중요한 특징이다. 언어는 문화의 전달과 의

사소통의 수단이지만 제국주의가 피지배자들의 저항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제국의 문화에 동화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언어는 문화를 수반하며, 문화는 우리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인식하게 하는 것, 즉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는 어떤 것이다.

프란츠 파농이 말하는 것처럼 케미리의 아버지에게는 스웨덴에 온 첫날부터 자신 안에 '하얀 가면'이 생겨났다. 그것은 스스로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불안증이다. 타자의 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타자를 의식하고 모든 행동을 행한다. 아버지는 문명화된 사회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언어와 마주치게 되고 거기에 자신을 동화시키려고 하며 그 동화의 정도가 강할수록 자신이 그만큼 개화되었다고 믿으려 하는 정체성의 위기를 보인다. 아버지는 자신을 결코 흑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아버지는 백인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그는 흑인이다. 스웨덴 사회로의 동화를 시도하려는 아버지는 상상력의 차원에서 흑인임을 거부해야만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신이 백인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존재로 지각되기를 희망한다. '흑인이지만 아주 성공한 사람이다'고. 스웨덴 문화에 동화된다고 함은 아버지에게 개화된다는 사실을 확신시키지만 아버지는 경제적 현실, 불평등성, 생활양식의 현저한 차이가 자신의 현실을 은폐하게 하지는 못한다. 아버지에게서는 흑인의 주체형성과정에서부터 식민주의가 초래한 소외가 발생한다. 아버지는 자신이 흰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스웨덴의 백인사회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이 쓰고 있는 흰 가면이 가면에 불과한 것임을 고통스럽게 인식하면서도 그 흰 가면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한다.(파농, 1998)

스웨덴어 구사 능력에 따라 문명화정도를 평가받는다. 스웨덴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느냐에 따라 인간 됨됨이가 가늠된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문화적 규범을 자기의 가치로 여기면 여길수록 야만인의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언어를 통해서 아버지는 스웨덴의 문명과 의식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스웨덴인으로 형성하길 바라고, 자신과 스웨덴인의 정체성을 동일화하려는 욕망을 꿈꾸는 일종의 자기 콤플렉스의 징후들을 보여주게 된다. 즉 아버지의 열망은 스웨덴인이 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도 스웨덴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열등감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콤플렉스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스웨덴 사회와 스웨덴인이 그에게 은연중에 강요한 허위의식과 그 허위의식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동화작용이 만들어낸 가상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비난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튀니지인도 아니고 스웨덴인도 아닌 기형적인 형태로 만들게 한다.

5. 나가는 말

케미리의 소설은 매우 재미있고 의욕적이고 독창적이다. 그러면서도 마치 불꽃놀이 가운데에 분노와 비극의 펄스가 느껴지는 블랙 코미디와 같이 느껴진다. 특히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스웨덴의 인종차별이 이민에 대한 반대라는 폭력으로 커져가는 것은 요나스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데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진다. 증오심이라고 자주 주장해왔던 공포가 이 부분에서 여러 다른 민족을 통해서 다양하게 발산된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리감과 깊이가 커지고 깊어짐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이들의 애수가 읽혀진다. 카디르는 희극과 비극사이의 공간을 좁혀주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케미리의 소설 『몬테코어』에서 나타나는 케미리의 독특한 언어를 분석해보고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이주자의 정체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케미리의 소설에는 독특한 언어의 파격적인 변형이 이루어진다. 스웨덴어화된 프랑스어, 비관습적인 단어의 조합, 사회적 관습에 대한 위반, 현대적인 관습에 대한 위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휘 결합에 대한 위반 등 다수의 언어표현이나 문장이 일반적인 스웨덴어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미리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적 언어를 창조해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독자들이 케미리의 언어를 읽어내는데 커다란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독자들은 이제까지 서술되었던 방식과는 다른 케미리의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링케뷔 스웨덴의 구조를 연상시키는 인공적인 언어의 구성을 통해서 때때로 상당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케미리는 오히려 이러한 서술방법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

을 수 있게 하였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의 언어와 느낌을 알게 하였고 나아가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설의 분석에 대한 방법론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었으나, 이제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케미리라고 하는 작가와 스웨덴의 이주자 문학을 소개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앞으로 케미리의 언어 외에도 케미리의 소설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더욱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데이비드 허다트. 2011. 『호미 바바의 탈식민지적 정체성』. 서울: 도서출판 앨피.
- 케미리 요나스 하센. 2012. 『몬테코어』. 서울: 민음사.
- 파농 프란츠. 1998.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서울: 인간사랑.
- Bhabha, Homi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 Einarsson, Jan. 2004. *Språksociologi*. Lund: Studentlitteratur
- Fraurud, Kari och Bijvoet, Ellen. 2004. .Multietniskt ungdomsspråk och andra varieteter av svenska i flerspråkiga miljöer. In Hyltenstam, Kenneth och Lindberg, Inger (red). *Svenska som andra språk i forskning, undervisning och samhälle*. Lund: Studentlitteratur.
- Hellspång, Lennart och Ledin, Per. 1997. *Vägar genom texten*. Lund: Studentlitteratur.
- Hultman, Tor G. 2004. *Svenska Akademiens språklära*. Stockholm: Norstedts ordbok.
- Johnstone, Keith. 2003. *Impro . Improvisation och teater*. Stockholm: entré/Riksteatern.
- Khemiri, Jonas Hassen. 2004. *Ett öga rött*. Köpenhamn: Månocket.
- Khemiri, Jonas Hassen. 2006 *Montecore . en unik tiger*. Stockholm: Norstedts.
- Kotsinas, Ulla-Britt. 2005 *Invandrarvenska*. Mölnlycke: Hallgren & Fallgren.
- Melin, Lars och Melin, Martin (2005): *Fiint språk*. Stockholm: Svenska Förlaget.
- Mellenius, Ingmarie (1997): *The Acquisition of Nominal Compounding in Swedish*. Lund: Studentlitteratur.
- Said, Edward W. 1991. *Orientalism*. London: Penguin Books.
- Sigurd, Bengt. 1991. *Språk och språkforskning*. Lund: Studentlitteratur.
- Stroud, Christopher. 2004. Halvspråkighet och rinkebyvenska som språkideologiska begrepp. In Hyltenstam, Kenneth och Lindberg,

- Inger (red). Svenska som andra språk. I forskning, undervisning och samhälle. Lund: Studentlitteratur.
- Svenska Akademiens ordlista över svenska språket. 2004. Tolfte upplagan, åttonde tryckningen. Stockholm: Norstedts Ordbok.
- Svenskan i Fokus . Svensk ordbok. 1987. Utarbetad av Språkdata vid Göteborgs universitet. Keuru: Esselte Studium.
- Vising, Johan. 1979. Fransk-svensk ordbok. Tredje upplagan. Nacka: Esselte studium.
- Westman, Margareta (2001): Språkets myller. Falun: Norstedts ordbok.
- 극단 유랑선. 2011. Newsletter. vol. 3.
<http://www.aftonbladet.se/vss/nyheter/story/0,2789,811531,00.html>
<http://g3.spraakdata.gu.se/saob/>
<http://www.khemiri.se/docs/khemiriintervju.pdf>
http://svt.se/svt/jsp/Crosslink.jsp?d=27170&a=526179&lid=puff_526249&lpos=rubrik
- Intervju med Jonas Hassen Khemiri som sändes i SVTs Go'kväll under våren 2006

〈Abstract〉

The linguistic idiosyncrasy as Jonas Hassen Khemiri's identity in his novel

Jai-Ung Ho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

The purpose of this essay was to identify the anarchic linguistic idiosyncrasies that occur in Jonas Hassen Khemiri's *Montecore* - a unique tiger. *Montecore* - a unique tiger is not only funny, ambitious and inventive but Khemiri's wordplay and deliberately odd narrative clearly offers also a serious commentary on Swedish society. Khemiri gives us questions of culture and language, racism and violence, metafiction and postmodernity, formal conceit and constraint.

Jonas Hassen Khemiri, the son of a Tunisian father and Swedish mother, was raised in the vicinity of Rinkeby. 'Rinkeby Swedish(Rinkebysvenska)' is any of a number of varieties of Swedish spoken mainly in suburbs with a high proportion of immigrants and immigrant descendants, which emerged as a linguistic phenomenon in the 1980s. 'Rinkeby Swedish' is used by urban toughs and middle-class youths eager for a little street credibility. Rinkeby Swedish is regarded as a sociolect, dialect, ethnolect, or maybe a "multiethnolect". Khemiri's novel, *Montecore* narrates the life-story of the Jonas' immigrant father, Abbas Khemiri in Rinkeby Swedish which is full of playful malapropisms, missing words and broken syntax.

This study aims to the level of linguistic performance in Khemiri's novel and analyse Khemiri's linguistic creativity that amuse the reader.

Key words: Khemiri, Montecore, Rinkeby Swedish, identity, linguistic idiosyncrasy

성명: 홍재웅 (Jai-Ung Hong)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주공아파트 25동 405호

전자우편: theaterhong@gmail.com

논문접수일 2012년 7월 13일

논문심사일 2012년 8월 14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25일